

“기본·도전 정신”...광주은행 올해 성장 발판 삼자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광주은행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대두와 장기화 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 악재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특히 금융권 무한경쟁 속에서 해외사업 강화 등 사업 다각화는 물론,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지역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경영'에 집중한다.

광주은행은 지난 19일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지난해 경영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세부적인 실천 전략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최근 부동산 PF 건전성 악화 위기뿐만 아니라 우발 채무의 연쇄 부실 우려, 고물가·취업난 등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코로나 19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 지표의 하락 반전, 주택 담보대출 이동제의 전격 시행으로 무한 경쟁이 우려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외 고 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기본'과

내실 경영·미래 경쟁력 제고·지역 상생 등 '5대 실천 전략' 제시

소상공인 1조대 상생자금 지원...해외사업 강화 등 사업 다각화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며 ▲내실경영 기반 균형 성장 ▲미래경쟁력 제고 ▲지역 상생 경영 ▲그룹 시너지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실천 전략으로는 내실경영 기반의 균형 성장을 위해 비부동산 PF 확대 및 토스공동대출 추진을 통해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경영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디지털 및 해외사업 역량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선진화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해 미래 경쟁력을 갖춰 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고 은행장은 지역대표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지역 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도 강조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위한 지원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민생금융지원에 293억원,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이뤄진 상생금융지원에 1조 3030억원 등 총 1조3323억원의 지원금을 편성해 지역 상생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에 4021억원,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에 7055억원 등 총 1조1076억원의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신뢰경영'을 펼쳐왔다.

그 외에도 최근 5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오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며 "지역민과 광주은행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19일 열린 광주은행 '2024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올해 주요 업무와 세부 실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리 떨어지는데 단기 예금 인기 왜?

'1년 이상' 보다 금리 높아... 지난해 11월 '6개월 미만' 잔액 210조6275억 '6개월째 증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가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10조6275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5월 (168조5531억원)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만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해 9월 164조1384억원, 10월 166조459억원, 11월 178조5465억원 등으로 늘었다.

반면에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지

난해 9월 591조9366억원, 10월 584조6672억원, 11월 579조9663억원 등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이후 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은행들이 만기가 1년 미만인 예금의 금리를 더 높은 영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6개월 만기 조달금리가 1년 만기 조달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단리)

의 6개월 만기 최고금리는 3.60%로, 1년 만기 최고금리(3.57%)보다 0.03%포인트(p) 높았다.

신한은행이 판매하는 '쏟편한 정기에금'의 최고금리도 6개월 만기가 3.55%로, 1년 만기(3.50%)보다 0.05%p 더 높았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4분기 대거 유치했던 고금리 예금의 만기 도래를 전후로 재유지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분산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1년 뒤 다시 한번 만기 도래 금액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일종의 리스크 차원에서 만기를 분산해 수신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H, 건설혁신안 발표... 신뢰 다시 쌓을까

품질관리처·스마트건설처 신설... 정기 안전점검 5회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품질관리처', '스마트건설처' 신설을 비롯해 5개 부문의 44개 과제를 담은 건설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는 품질관리 혁신을 위해 본부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는 품질전담부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들은 품질시험 점검을 관리하고,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 등 업무를 상시 수행하고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기존 서류·매감 위주로 진행됐던 준공 검사는 비파괴 구조 검사 및 안전점검보고서 교차 확인으로 바꾸고,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이외 건설산업 디지털화와 부실시공 문제 단절

을 통한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3차원 가상 공간에 설계·시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설계 도면 및 영상기록 일 반 공개 등을 추진한다.

LH는 '책임 건설'을 위해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할 업체는 입찰 시 실력 처리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부실시공을 없애고 고품질 주택을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매도 금지 장기화하나... '실시간 감시' 기준 이전

완전한 실시간 체계 불가능... TF 중간발표 앞두고 고심

尹 대통령 '확실한 조치' 강조...재개 시점 불확실성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재개 시점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재개 조건으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를 내 건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실시간 감시 체계'를 어느 수준으로 구현해 내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공매도 금지 재개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체계 구축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

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금지 기간이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본인 임기 중엔 공매도 금지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며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수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

템 구축 태스크포스(TF)'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뽕족한 수가 없다 보니 공회 전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확실한 대책을 주셨기 때문에 TF가 뭐라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조만간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중간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론을 빨리 내서 공론화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개인투자자들과 유관기관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프리미엄 유아차 광주신세계 본관 1층 에그(egg)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부부가 신상 유아차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월 4일까지 본관 1층에서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영국 프리미엄 유아차 브랜드 에그(egg)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공장·제조업소 경매 느는데... 낙찰률 10년만에 최저치

로또복권

(제110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2	29	31	40	44	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74,419,633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8,695,469			76	
3	5개 숫자일치	1,533,468			2,909	
4	4개 숫자일치	50,000			144,537	
5	3개 숫자일치	5,000			2,436,768	

전남 26.3% '전국 하위권'

지난해 법인 경매에 매물로 나온 공장·제조업소가 늘었지만 응찰자는 줄면서 낙찰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공장·제조업소 경매는 총 2287건으로 전년(2201건)에 비해 86건(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낙찰된 것은 745건에 불과해 낙찰률이 32.6%에 그쳤다.

지난해 낙찰률은 전년(41.5%) 대비 8.9%p 떨어져, 2013년(31.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5월 37.9%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낙찰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감소했다.

매물로 나오는 공장·제조업소는 증가한 반면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제조업소 경매 응찰자 수는 건당 평균 2.74명으로 전년(3.30명) 대비 0.56명 줄었다.

지역별 낙찰률을 보면 전남은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제주(22.2%)가 가장 낮았고, 강원(24.7%), 세종(25.0%), 충북(25.3%), 전남(26.3%) 순으로 낮았다.

지지옥션 이주현 팀장은 "지속된 고금리로 차입금을 갚지 못하는 사업주가 늘면서 경매 매물은 늘어나지만, 경기침체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낙찰률이 낮아졌다"며 "공장 경매는 아파트 경매와 달리 경기를 느끼게 반영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중기부 광주전남중기청 2월 26일까지 '비대면' 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21일 '2024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하루 8시간, 주 5일 교육하며,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과 연계 프로젝트, 취업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200명을 선발한다.

서울시 흥익대 인근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하며, 대면 과정과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비대면 과정'도 100명 모집한다.

특히 '비대면 과정'은 정원의 50%를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이며, 면접 등 평가를 거쳐 3월 중순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말 이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직무별 특화과정(DS, DE)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교육기간은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과 IT 관련 협단체 등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수료 후 1년 동안 일자리 매칭 및 취업 컨설팅 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이어드림 스쿨 누리집(veardream.ninehire.si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